

외국인 광주 정착 돕는 ‘소통 창구’ “언어는 기본, 인턴십 경험은 자산”



일하는 청년

빛나는 미래

10 광주외국인주민지원센터

광

주외국
인주민지원
센터(센터)

가 광주 거주 외
국인 주민의 ‘핫 플레
이스’로 떠오르고 있다. 센
터는 지역 외국인 노동자

들의 안정적인 정착을 돕기 위해 일상생활 도움부터 행정처리 절차까
지 지원해주면서 외국인 주민의 발길이 끊이지 않고 있다.

각종 어려움에 처한 외국인 주민을 대상으로 무료 지원 활동까지 제
공하고 있는 광주외국인주민지원센터는 광주국제교류센터가 광주시
로부터 위탁받아 2025년 4월 14일 하남산단 인근에 문을 열었다.

특히 주말이면 센터가 진행하는 강의를 듣거나 다국어 통역사를 통
한 사업자 변경, 출입국 온라인 신청, E-Pass 가입 등 다양한 업무를
처리하기 위해 평균 300여명의 외국인 주민이 센터를 찾고 있다.

또 지난 2월에는 같은 건물에 지역 대표 은행인 광주은행 외국인 전
용 금융센터가 들어서면서, 양 기관이 상호협력력을 통해 외국인 주민
들의 상담부터 금융 관련 지원까지 제공해 외국인 주민들로부터 인기
를 끌고 있다.

센터에는 이처럼 매일 복잡한 외국인 대상 행정 업무들을 지원하
고, 타지에 정착해 어려움에 처한 외국인 주민을 묵묵히 돕는 청년 일
꾼들이 있다.

이들은 광주에 거주하는 외국인 주민을 대상으로 한국 적응을 돕기
위한 강의, 상담, 글로벌 커뮤니티 활동 지원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기
획하고, 외국인 주민과의 소통을 통해 일상에서 겪는 불편까지 해소
하는 등 광주와 외국인 주민 간 ‘소통창구’ 역할을 톡톡히 해내고 있
다.

광주일보는 광주 최대 규모의 외국인 지원 기관인 ‘광주외국인주민
지원센터’를 찾아 청년 일꾼들의 주요 업무와 취업 스토리 등을 들어
봤다.

지난해 국제교류센터에서 일자리를 옮긴 문정아(여·35)씨, 입사 4
개월 차인 신유진(여·25)씨가 그 주인공이다. 또 같은 건물 1층에 들
어선 광주은행 외국인 전용 금융센터에서 근무하고 있는 2년차 은행
원 박세은(여·27)씨도 외국인 주민들과의 소통을 통해 안정적인 정착
을 위한 금융 업무 해결을 돕고 있다.

문정아씨는 광주국제교류센터에서 외국인 주민지원사업, 내·외국
인 문화교류사업 등을 운영하다가, 지난해 센터 개소와 함께 근무지
를 옮겼다.

문씨는 외국인 주민 지원을 주도하는 외국인지원팀의 총 책임자로,
대부분의 외국인 주민 지원 업무를 총괄하고 있다. 또 ‘광주시 외국인
서포터즈’와 ‘전남대 국제 여학생회’의 운영을 도맡는 등 유학생 관리
도 전담하고 있다.

사실상 경력직 청년 취업자이기도 한 문씨는 청년 취업과 관련해
‘나 스스로 파악하기’를 가장 중요한 요소로 꼽았다.

문씨는 “일반적인 취업에 있어서도
‘자기가 좋아하는 일 찾기’가 우선이라
고 생각한다”며 “특히 우리 센터의 경우 업
무 특성상 많은 외국인 주민을 만나는 게 주
업무이다보니, 스스로 기본적인 내·외향적 성향
등은 미리 파악하는 것이 더욱 중요하다”고 말했
다.

이어 “업무 능력은 언제든지 배울 수 있지만, 인성과 적
극성 등 일을 대하는 태도는 바뀌기 어렵다”며 “스스로 파악
하고, 적성에 맞는 일부터가 취업의 시작이라고 생각한다”고
조언했다.

문씨는 특히 취업 준비를 하던 대학교 4학년 시절 호남대학교에선
처음으로 5주간 센터내 현장실습 인턴십에 참여한 게 취업에 큰 도움
이 됐다고 한다.

당시 문씨는 영어조차 잘하지 못했지만, 외국인 친구를 사귀는 것
을 좋아해 인턴십을 지원했고 센터에서의 짧은 인턴생활을 거쳐 노력
 끝에 졸업 후 취업까지 성공할 수 있었기 때문이다.

청년 취업 4개월차 새내기인 신유진씨도 취업에 있어서는 “어느 정
도 방향성을 먼저 정할 필요가 있다”고 공감했다.

신씨는 입사 4개월 차의 센터 막내지만, 글로벌문화언어교실 등 외
국인 주민을 대상으로 하는 언어교육과 한국 문화체험 및 봉사활동이
포함된 ‘지구촌친구광주본문투어’ 업무를 맡아 내실을 다져가고 있다.

신씨가 센터 업무에 빠르게 적응한 것은 영어와 프랑스어 등 외국어
에 능숙하다는 장점은 물론 대학교 재학 당시부터 외국인 유학생이 다
수 참여하는 각종 프로그램 등에 참여하는 등 외국인과의 소통을 즐겨
왔기 때문이다.

신씨 역시 문씨와 마찬가지로 취업과정에서 현장실습 인턴십을 활
용하는 등 다양한 경험을 쌓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. 인턴십 등
을 통해 경험했던 일자리가 향후 직장이 될 수도 있고, 그렇지 않더라
도 업무에 대한 적응 적합도 등을 쉽게 따져볼 수 있기 때문이다.

신씨는 전남대학교 재학 당시 외국인과의 소통 및 문화교류 목적의
‘비디프로젝트’에 참여하고, 졸업 직전인 지난해에는 전남대 국제여
대학원에 참여해 ‘우수팀’으로 선정되는 등 다양한 경험을 통해 장래
희망을 확고히 할 수 있었다고 했다.

신씨는 “센터 뿐만 아니라 어떤 분야에 취업을 하더라도 다양한 경
험을 쌓되, 취업 방향성이 정해졌다면 어느 정도 관심 분야에 대한 파
악과 관련 경험을 쌓을 필요는 있다”고 조언했다.

지난해 광주은행에 입사한 박세은씨는 올 2월 말 센터 건물 1층 광
주은행 외국인 전용 금융센터로 일터를 옮긴 뒤 보람찬 하루하루를 보
내고 있다고 한다.

박씨가 근무하는 외국인 전용 금융센터는 광주외국인주민지원센터
와의 연계를 통해 금융 서비스 활용 등에 어려움을 겪는 외국인들을 대
상으로 신용대출 상담 등 일반은행에서 가능한 모든 서비스를 제공하
고 있다.

외국인주민지원센터 상담 과정에서 금융 관련 어려움이 발생하게
되면 바로 아래 광주은행 외국인 전용 센터를 방문해 속 시원하게 해
결하는 사례도 늘고 있다.

박씨는 “평소 은행 업무에 관심이 많았고, 어려서부터 새로운 사람
과의 만남, 특히 외국인과의 소통도 좋아했다”며 “이 두가지를 모두 누
릴 수 있는 지금 제 ‘워라벨’은 최고”라고 활짝 웃었다.

박씨 역시 직업 선호도 및 개인적 성향 등에 맞는 취업이 가능했던
것은 다양한 경험 덕분이다.

박씨는 “우선 제 성향에 맞도록 사람과 최대한 많이 접촉하는 직종
을 생각했었는데, 대학 생활 중 전남개발공사와 국민은행 디지털 서
포터즈 등 인턴십을 2번 경험할 수 있었다”며 “공기업의 업무 분위기,
은행의 업무 분위기를 모두 경험해보니 스스로 진로도 확고해질 수 있
었다”고 말했다.

/장윤영 기자 zzang@kwangju.co.kr

문정아 외국인지원팀장

주민 지원 총괄·유학생 관리 업무
취업 준비, 좋아하는 일 찾기가 시작
대학시절 5주간 인턴십 활동 참여
외국인 친구 사귀고 언어 습득 도움

신유진 외국인지원팀 간사

‘지구촌친구광주본문투어’ 운영
영어·불어 능숙...타인과 소통 즐겨
학부때부터 문화교류 프로그램 참여
진로 결정 후 관련 분야 경험 쌓아

박세은 광주은행 외국인금융센터 행원

신용대출 상담 등 은행 서비스 전반
새로운 사람과 만남 즐기는 성향
은행 디지털 서포터즈 등 인턴십 활동
공기업·은행 분위기 파악후 진로 선택



지난 10일 광주외국인주민지원센터에서 신유진(왼쪽부터), 박세은, 문정아씨가 포즈를 취하고 있다.

/나명주 기자 mjna@kwangju.co.kr